

절약형 전기온돌판넬로 시장 공략

반영구적 사용가능하며 5분안에 난방이 가능



대호산업 박광수 대표

대호산업(대표박광수)은 ‘생활을 따뜻하게 만드는 기술’ 절약형 전기온돌판넬을 생산하는 회사로 축척된 기술의 노하우와 최고의 서비스 정신으로 포천에 있는 공장에서 직접 생산, 판매, 시공하는 전문업체이다.

박광수 사장은 과거 7년간의 LG가스공조기 대리점등의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험하다는 청계천에서 잔뼈가 굵어 판매에서 제조까지 성공한 중소기업인이다.

박사장은 자사의 주요판매 제품인 전기 온돌 판넬의 장점에 대해 “가스중독, 폭발, 화재의 염려가 없어 안정성을 갖추었고 연료를 저장하거나 갈아넣을 필요가 없는 편리성, 또한 연기, 재, 소음, 냄새가 없어 깨끗한 환경속에서 풍족하고 즐겁게 생활 할 수 있는 쾌적성, 그리고 유가변동에 따른 가격상승에 우려가 없는 경제성등을 두루갖춘 제품이다”라며 “수명도 다른 난방 기구에 비해 반영구적일뿐아니라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지는 요즘 5분 안에 난방이 가능이 가능해 현대 맞벌이 부부들의 구미를 당길만한 제품이다”라고 말했다.

박사장은 또 “전기요금체계가 생활수준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인데 요금 체계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위험한 가스 보다 친환경적인 전기로 난방을 하게 되고, 판넬 시장 성장이 지속적으로 가능 하다.”며 전기온돌판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기료가 저렴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대호산업이 생산하고 있는 전기온돌 판넬은 인체에 해로운 전자파를 차단하기위해 포스코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 공동 개발한 전자파 차폐 강판(Bio-shield steel)을 사용하여 이체에 해로운 전자파를 막아주는 (전자파 차폐 강판이란? 기능성 강판으로 가전 및 전력기기에서 발생하여 인체유해 가능성)이 제시된 60Hz대 극저주파 자기장 을 효과적으로 차폐하



www.daehopanel.co.kr

여 주거공간의 참다운 웰빙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는 친환경 강판)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로 제조한 이태리 LORENZI GROUP 제품의 온수기를 열에너지기기의 선두주자 대호산업이 직수입 하고 있다.

때문에 대호산업은 우리나라의 난방우수성이 세계에 인정되어 대만 일본 호주 중국 등에 수출하고 있다.

온돌 사업의 노하우를 묻자 박광수 사장은 “청소를 잘해야 된다. 즉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는 뜻이다.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성공 한다. 그리고 중요한건 사후관리이다. 한번고객은 영원한 고객이어야 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을 감동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사장은 향후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여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는 좋은 제조회사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이다.

월간 ‘보일러설비’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박사장은 “월간 보일러설비는 매달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앞으로 토막상식, 사업컨설팅과 활발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의 인터뷰 등을 회원들에게 유익한 정보지가 되어 달라”고 주문하였다.

